

신인 국악인 등용문 임방울국악제 팡파르

신인 국악인 등용무대인 제29회 임방울국악제가 오는 10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펼쳐진다.

행사를 주관하는 ㈜임방울국악진흥회는 이 기간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을 비롯해 광주문예회관, 5·18기념문화센터, 광주향교 등 8개 공연장에서 국창 임방울 선생의 숭고한 예술혼을 기리고, 국악신인 발굴을 위한 대회가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경연은 학생부와 일반부로 진행되며, 학생부는 판소리, 기악(관악, 현악), 무용 부문으로, 일반부는 판소리, 농악, 기악, 무용, 시조, 가야금병창, 퓨전국악으로 진행된다. 특히 판소리계의 새로운 스타를 발굴해 내는 명장부는 국악계 초미의 관심사다.

첫날인 10월 1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는 아마추어 국악인들의 잔치인 '임방울판소리장기자랑대회'가 열린다. 입상자에게는 금·은·동·인기상·장려상 등 입상자 50명에게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같은 날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는 '전야제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서정금 명창(제28회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 수상자)의 사회로 진행되는 공연은 지난해 농악일반부 대상을 수상한 김천농악팀이 농악놀이로 무대의 문을 열고 국창 임방울 선생의 애창곡 호남가와 춘향가 중 속대머리가 공연된다.

내달 1~4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전야제·아마추어대회·명창 선발

또 이매방 선생의 출맥으로 광주 호남권에 전승되고 있는 호남검무와 양지은의 축하공연 춘향가, 흥보가, 남도민요가 연주된다.

본선은 4일 낮 12시30분부터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본선 대회는 SBS TV로 전국에 생중계된다.

판소리 명장부 대상인 대통령상을 비롯해 각 부문별로 국회의장상, 국무총리상, 문체부장관상 수상자가 결정된다. 영예의 판소리

명장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상장과 상금 4,000만원, 1,000만원 상당의 순금 임방울상 트로피가 수여된다.

명장부 최우수상(조선일보 방일영상)엔 상금 2,000만원, 농악일반부 대상(국회의장상)엔 상금 1,000만원, 농악일반부 최우수상(광주시장상)엔 상금 700만원이 수여된다.

기악 일반부(국무총리상), 판소리·무용·가야금병창(문체부장관상), 시조, 퓨전국악 일반부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각 400만원이 주어진다.

임방울국악진흥회 김종재 이사장은 "올해로 29회째를 맞는 임방울국악제는 해를 거듭하면서 명실공히 전국 최고 대회로 평가받고 있다"며 "올해 경연대회가 국악인들에게는 숨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장이 되길 바라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고 지친 국민들에게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연수 기자



국창 임방울 선생. /㈜임방울국악진흥회 제공

전남관광 디카시 '웃음꽃 전남'



달마고도

이태웅

백두대간 달려 온 땅끝기맥 산줄기
불꽃처럼 솟구친 달마산 빛어 놓고
미항사 큰바람재 산허리 돌아드는
오솔길의 발길마다 고여오는 숲의 적요

내면 세계로
나를 찾는 길

※ 달마고도: 달마산 종턱을 따라 한 바퀴 도는
17.74km 6시간 소요의 원점 회귀형 걷기 여행길.

5·18민주화운동 프로젝트 '둥글고 둥글게' 런던 공개

한국영상자료원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오디오-비주얼 프로젝트 '둥글고 둥글게' (Round and Around)가 영국 런던에서 해외 관객을 만난다.

영상자료원은 다음 달 22일까지 영국 런던 주영한국문화원에서 '둥글고 둥글게'를 해외 최초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둥글고 둥글게'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부터 1988년 서울올림픽까지 한국 사회가 지나온 역사의 변곡점을 사진과 영상, 음악을 활용해 극장과 공연장이라는 시공간에 재배치함으로써 1980년대 한국 사회를 되돌아보는 '시정각 체험 공간'을 제공한다. 런던에서는 기존의 극장 상연 형식이 아닌 전시 형식을 차용해 이전 영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미지들을 처음 공개한다.

미디어 아티스트 장민승과 음악감독 정재일이 협업한 '둥글고 둥글게'는 지난해 11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최초 공개됐고, 올해 5월 서울과 수원, 부산에서 공개된 바 있다.

/이연수 기자



장민승·정재일 감독. /한국영상자료원 제공

인간이 지닌 삶의 '희망과 긍정' 에너지

곡성 갤러리 107, 이혜경 초대전 '목화 이야기'

곡성 갤러리 107과 스트리트 갤러리에서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목화 이야기'라는 주제로 서양화가 이혜경의 초대전을 개최한다.

곡성군 곡성을 중앙로 107-1번지에 자리한 곡성 갤러리 107은 지난해 5월 개관했다. 곡성 시내 한복판에 조성돼 지역 문화예술 감성을 높이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인근 농협 앞과 곡성경찰서 앞에는 스트리트 갤러리가 조성됐다.

곡성 갤러리 107의 가을 기획전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는 이 작가의 작품 3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곡성 곁면의 목화를 주제로 삶의 희망과 긍정의 기운을 담아 제작한 대작들이다.

이 작가는 야생화를 비롯해 양귀비와 목화 등을 소재로 독자적인 화력을 쌓아왔다. 작가는 오래 전 곡성 곁면에서 열리는 목화축제를 알게되어 목화솜을 보러 갔다가 마음 속 깊은 행복감을 느꼈다고 한다.

작가는 "내 마음 속의 목화는 인간이 지녀야 할 삶의 덕목

을 보여주는 자연의 모습이다. 처음 피어나는 꽃대는 소녀들의 수줍음, 정오 무렵 화사하게 피어나는 하얀 꽃잎은 화려한 웨딩드레스, 붉은 빛으로 물들어 가는 목화는 인생의 달고 쓴맛들이 오묘하게 스며드는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평론을 쓴 손정문 미학박사는 "작가의 밝고 화려한 색감은 현대인들에게 상실된 자연성과 무더진 원초적 감성을 환기하는 심리적 동기부여를 제공한다. 그의 목화솜꽃은 삶의 깊이와 안식, 평화, 나아가 이상성을 염원하는 판타스틱한 뉘앙스를 발현하고 있다"고 평했다.

작가는 "목화 작품을 통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온기와 마음 속 깊은 사랑, 그리고 포근한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전시 소감을 밝혔다.

작가는 조선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했으며, 11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국내외 단체전에 참여했다. 무등갤러리 관장, 광주전남 여류화가 회장,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을 역임했으며, 광주예술문화상과 원진미술상을 수상했다.

갤러리107은 전시가 열리는 기간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하며 공휴일은 휴관이다.

/이연수 기자



'축복'

hotelthestar.com

천년의빛 영광

자연과 어우러진 곳에서
최상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더 아름답게 빛나는 오늘을 더 스타에서 함께하세요

THE STAR

호텔

레스토랑 / BAR

로비

카페

객실

예식장

무대

웨딩 / 돌잔치 / 각종모임 / 기업행사 예약문의 010-3627-5003

천년의빛 영광

HOTEL THE STAR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74 TEL. 061) 350-7900